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글 박민승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 사내기자

31년 간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근무하였던 양점석 팀장의 퇴임식이 지난 6월 23일 진행되었다. 공식적인 퇴임 날짜는 금년 12월 31일이지만 앞으로 본부 소속으로 떠나게 되기에 부산경남지역본부 임직원들이 자리를 만들어 퇴임식을 준비하였다. 이날 퇴임식에는 그간 양 팀장과 친분이 있던 타 센터 직원들도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양 팀장은 지난 1991년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산업위생관리기사로 입사해 산업현장과 행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묵묵하게 산업보건 발전을 뒷받침해온 보건협회의 산증인이다. 젊은 시절 열정 하나로 묵묵히 한 번의 이직 없이 31년간 협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온 양 팀장. 그는 협회의 기쁨과 슬픔의 순간을 함께한 역사이다. 그의 인생에 협회는 시작이자 끝이었고 청년에서 정년까지 동고동락을 함께한 부산은 양 팀장에 있어 뜻깊은 곳이기도 하다.
또한 양 팀장은 필자의 직속상관이다. 양 팀장의 근속기간에 대비해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긴, 약 6년간 같은 사무실에서 봐왔기에 같이 떠나보내는 아쉬움이 크다. 그동안 옆에서 봐왔던 양 팀장은 사려가 깊어 팀원의 안부를 종종 물어볼 때가 많았다.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팀원들의 고충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퇴임식은 박영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일 본부장의 양 팀장 약력소개로 이어졌다. 이어 공로패와 기념품을 전달하고 전용문 원장과 우정구 운영지원팀장의 진심이 담긴 송별사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양 팀장은 지난 31년간의 임기 소회를 퇴임사를 통해 밝혔다. 한 글자 한 글자 퇴임사를 읽어 내려가던 그는 그동안 희로애락을 같이한 추억을 회상하는 듯 순간순간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다. 퇴임사를 들은 임직원들은 이제는 진짜 떠나보내야 한다는 마음에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그의 새출발을 한마음 한뜻으로 기원하였다. 환경위생팀원들은 그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의 이름으로 3행시를 지어 현수막을 제작하여 그를 응원하였다. 양 팀장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가 쉼 없이 달려온 산업위생 외길은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는 양질의 영양분이었다. 앞으로 있을 그의 제2의 인생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기원한다.

양 | 양점석 팀장님 이별할 시간이
점 | 점점 다가오고 있네요.
오늘 저녁 모두 다함께
석 | 석별의 정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양점석 팀장 약력

학력
1991.02.
부산수산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자격사항
산업위생관리기사
대기환경기사
인간공학기사
소음진동기사

경력
1991.04.
부산센터 환경위생과 입사
경북센터 보건관리부 보건대행과장
부산센터 보건대행부 환경관리과장
대구센터 보건관리부 보건관리부장
경북센터 환경위생부 환경위생부장
부산센터 환경위생부 환경위생팀장